가을야구 갈림길 선 KIA… 운명의 1주일

6위 삼성과 반게임 차… 8위 롯데도 상승세
로맥·박병호·김재환 홈런왕 경쟁 관전 포인트

지난해 프로야구 통합 우승팀 KIA 타이거즈가 멀어져가던 가을야구행 버스에 탑승할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KIA는 9일까지 116경기에서 55승 66패를 기록, 승률 0.474로 리그 7위에 머무르고 있다.

2009년 한국시리즈 우승 이후 2010년 포스트시즌 진출 실패라는 아픔을 맛봤던 KIA는 정규리그 남은 26경기에서 반등에 실패하면 9년 만에 다시 한번 불명예 기록을 쓰게 된다.

KIA는 5위 LG 트윈스와 격차는 2.5게임, 6위 삼성 라이온즈와는 반게임 차이라 연승 한 번이면 언제든 중위권 재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8위 롯데 자이언츠가 2게임 차로 접근해 시즌 마지막까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행보는 이어질 전망이다.

KIA는 11일과 12일 창원 마산구장에서 NC 다이노스와 2연전, 13일과 14일은 부산 사직구장에서 롯데와 2연전을 앞두고 있다. 주말인 15일과 16일은 SK 와이번스와 홈 2연전이다. KIA의 성적에 따라 시즌 막판 5위 경쟁은 더욱 열기를 더해갈 것으로 보인다.

11~12일 2연전에서 2위 탈환에 도전하는 한화 이글스는 삼성과 대구에서, 2위 굳히기에 나선 SK는 문학에서 kt wiz와 맞대결한다. 두산은 롯데와 원정 2연전을, 넥센 히어로즈는 LG와 잠실에서 경기를 치른다.

13일과 14일 주중 2연전은 KIA-롯데(사직), kt-두산(잠실), LG-삼성(대구), SK-한화(청주), 넥센-NC(마산) 순이다. 그리고 주말인 15일과 16일은 LG-한화(대전), NC-두산(잠실), SK-KIA(광주), 삼성-kt(수원), 넥센-롯데(사직)가 일전을 벌인다.

날로 치열해지는 홈런왕 경쟁도 이번 주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줄곧 1위를 달리던 제이미 로맥(SK)이 지난달 14일 시즌 37호 홈런 이후 침묵한 사이, 아시안게임에 다녀온 박병호(넥센)와 김재환(두산)이 맹추격을 시작했다. 박병호와 김재환은 지난주 나란히 홈런 3개씩을 추가해 시즌 36홈런으로 로맥의 뒤를 바짝 따라붙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 KBO리그 홈런왕으로 군림했던 박병호는 올해까지 타이틀을 차지하면 5시즌 연속이 된다. 로맥과 김재환은 개인 첫 홈런왕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KBO리그 2차 드래프트 '영광의 얼굴들' 1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2019 KBO 2차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선수들이 정운찬 KBO 총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드래프트에서는 해외파 이대은이 전체 1순위로 kt로, 메이저리그 유망주 이학주는 전체 2순위로 삼성의 선택을 받았다. 연합뉴스

서귀포시청 이홍석 전국복싱대회 은메달

서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복싱팀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경남 김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50회 전국우승권복싱대회 및 2020년 도쿄올림픽대회 2차 선발전에서 이홍석(사진)이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홍석 선수(-69kg)는 이번 대회에서 과감한 공격력을 보여주며 전 경기 레프리스톱으로 결승까지 올랐지만 박재만(상지대학) 선수를 상대로 판정패(2:3) 당하며 아쉽게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는 올해 서귀포시청 복싱부에 입단한 이홍석 선수의 일반부 첫 메달이다.

한편 서귀포시청 복싱부는 이번 대회를 마치고 제99회 전국체전을 대비한 전지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폭발적인 축구 인기, 칠레전도 매진

오늘 오후 8시 칠레와 평가전… 축구 열기 '후끈'
'혹사논란' 손흥민 "모든 선수 정상적인 컨디션"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월드컵,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연거푸 선전한 한국 축구가 제2의 중흥기를 맞는 분위기다.

지난 7일 코스타리카전에 이어 11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남미 강호 칠레와 친선경기도 매진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0일 "시야 방해로 판매하지 않는 좌석을 제외한 유효좌석 4만760석 중 당일 판매분 200석을 제외하고 모두 판매됐다"라며 "당일 현장 수량 200장은 11일 오후 2시부터 수원월드컵경기장 서측 매표소에서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축구대표팀은 러시아월드컵에서 16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조별리그 독일과 마지막 경기에서 투혼을 발휘하며 2-0으로 승리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손흥민(토트넘), 황의조(감바 오사카)가 합류한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분위기를 이어갔다.

최근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된 파울루 벤투 감독의 세심한 리더십까지 관심을 끌면서 축구대표팀은 최고의 분위기 속에서 평가전을 이어가고 있다.

'혹사논란'을 겪고 있는 손흥민(토트넘)이 칠레와 친선경기에서도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벤투 감독은 이날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칠레전 공식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을 내일 경기에 출전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모든 선수는 내일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정상적인 컨디션을 갖고 있다"라고 답했다.

손흥민의 몸 상태가 괜찮은 만큼, 그를 특별히 뺄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벤투 감독은 "경기 출전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부분은 선수들의 컨디션"이라며 "다만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들의 휴식이 부족했다는 건 인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훈련을 마친 뒤 내일 경기 선발 명단을 짤 것"이라며 "모든 면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제주국제생활체육테니스대회 국가대항전 제주 우승

세계 테니스 동호인들이 참가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2018 제11회 제주국제생활체육테니스대회'가 성황리 마무리됐다.

제주도테니스협회(회장 오재윤)가 주최하고 제주도, 제주도체육회, 제주도개발공사가 후원한 이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 싱가포르, 홍콩, 몽골 등 9개국 선수와 임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종합경기장 연정정구장에서 열렸다.

경기는 친선교류전, 국가대항전, 개인복식전으로 진행됐으며 제주도팀이 국가대항전 우승을 차지했다.

오재윤 회장은 폐회사에서 "앞으로도 제주를 널리 알리고 민간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대회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몬스터 류현진, 내일 신시내티전 출격

시즌 5승 재도전… 경계대상 1순위·출루율 1위 보토

'괴물투수' 류현진(31·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시즌 5승에 재도전한다.

미국 언론은 류현진이 12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릴 신시내티 레즈와 방문경기에 선발로 등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16일 부상 복귀 이후 6경기 만에 첫 방문경기 출격이다.

류현진은 이번 시즌 11번의 선발 등판에서 4승 2패 58⅓이닝 평균자책점 2.16을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인 뉴욕 메츠전에서는 6이닝 10피안타 5실점으로 고전 끝에 패전을 기록했는데, 경기 후 자책점이 3점에서 1점으로 수정되는 행운도 따랐다.

류현진의 신시내티전 통산 성적은 6경기 3승 1패 평균자책점 4.30이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는 2경기 1승 1패 평균자책점 4.91이었다.

신시내티 타자 가운데 경계대상 1순위는 조이 보토다.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타자 가운데 한 명인 보토는 이번 시즌 타율 0.283으로 다소 고전하고 있지만, 출루율 0.421은 내셔널리그 1위다. 보토는 류현진을 상대로 타율 0.364(11타수 4안타), 2루타 2개, 홈런 1개, 3타점으로 강한 면모를 뽐냈다.

스콧 셰블러는 류현진과 5차례 만나 안타 2개를 뽑았고, 그중 1개는 솔로 홈런이었다.

한편, 다저스는 신시내티와 3연전 첫날인 11일에는 왼손 투수 알렉스 우드를 선발로 낸다. 13일 등판 예정이었던 에이스 클레이턴 커쇼는 하루 뒤인 14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방문경기에 나선다. 연합뉴스